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인정 우수협회장 선정

# 김영모 회장 '대통령 국민포장' 수상

지난 2005년 12월 21일 열린 '2005 1천만 직능경제인대회'에서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대한제과협회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협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글 박소희 기자·사진 주현진

지난 2005년 12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직능경제인 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05 1천만 직능경제인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 총회장, 권오령 행정자치부차관, 김덕규 국회부의장, 열린우리당 이계안 국회의원을 비롯해 1천만 직능경제인을 대표하는 여러 직능단체 대표 회장 등 3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2005년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특히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 맡은 직능 부문을 발전시키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밀거름이 되고 있는 1천만 직능인의 표석이 될 수 있는 대표 직능경제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날 김영모 회장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중앙회 조병천 수석부회장, 박찬희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 김봉수 기획분과위원장,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1천만 직능경제인들에게 한국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21세기 경제인'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직능경제인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증진시키며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직능경제

인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취지로 진행됐다. 또 서로 각기 다른 기능 분야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우수한 직능인을 선발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직능경제인들은 참여정부의 국정에 적극 참여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부포상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한국발명단체총연합회 진방호 부회장, 국민포장을 받은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총 34명의 단체 임원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해의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은 가업을 잇는 전통이 잘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 분야의 업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화합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있어 이런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협회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협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